

“페인트 냄새 못살겠다” 기아차 인근 주민 잇단 민원

두통 호소에 이사하기도...올들어 민원 15건 넘어서 시청·구청은 “기준치 넘지 않는다”며 형식적 답변만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인근 주민들이 심한 악취를 호소하고 있다. 심한 페인트 냄새가 매일 도로 일대를 뒤덮으면서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는 하소연이 잇따르는가 하면, 악취를 피해 이사를 가는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과연 어디에서 발생하는 냄새인지 정확한 근원지 추적을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2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차 광주공장 주

변에서 페인트 냄새와 같은 심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이날 현재 시와 서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최소 15건 이상에 달한다.

광명하이츠아파트·부건아파트·우미리아파트·신천힐아파트 등 기아자동차 공장 주변에 사는 아파트 입주민 등 민원인들은 냄새와 악취로 눈이 따갑고 두통에 시달릴 뿐 아니라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대략 짧게는 직선거리로 300m, 최대 700

m 가량 떨어져 있다. 주로 퇴근시간인 오후 6시~9시 사이에 기아차 광주공장 방향에서 페인트 냄새와 같은 악취가 풍겨 오고 비 오는 날엔 악취가 더욱 심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입주민 등 민원인들은 기아차 광주공장 주변에 사는 점, 기아자동차공장 내 페인트 도장부 외 페인트 냄새를 유발할만한 시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악취 발생 근원지를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를 피해 입주민들은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시설 개선을 유도 중’이라는 등 매년 형식적인 답변을 들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시는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을 악취

개선관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한 뒤 해당 사업장 자율적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자율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관심대상 사업장은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하지만, 시는 악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구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배출구(굴뚝) 6곳과 공장부지 경계 2곳 등 8곳에 대한 복합악취 오염도 결과를 실시했다. 결과는 법정 허용치인 500배율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조성용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 요소

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라면서 “생산 라인이 쉴새 없이 돌아가는 대기업으로서 지역민을 위해 도덕적·윤리적으로 악취 방지 대책에 보다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이와관련, “올해 (악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엔 광주공장 차량 생산공간이 많지 않았는데, 62만대 증산 등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페인트) 사용량도 많아졌다”며 “악취 제거를 위한 대책반 운영과 함께 자체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 올해 안에 순환수시스템 펌프용량 증대 등 악취시설개선을 위한 설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교조 3명 복직 명령 광주교육청, 18일자로

광주시교육청은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오는 18일자로 복직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를 3일까지 하도록 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복직 시기는 학기 중 교사 교체에 따른 수업 혼란을 막기 위해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18일자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도 3일까지 전임자 4명의 복직신청 여부를 지켜본 뒤 복직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절차는 교육청이 복직 안내를 하고 복직신청서를 받는다. 만약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법적 강제성을 띤 복직명령을 내리게 된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에 회부되고 징계위의 의견을 들어 임명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직권면직이나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월호 희생자 잊지 말아주세요”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월호 가족 전국 순회버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새벽 안산을 출발해 오는 1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천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도VTS, 세월호 침몰 보름전 관제 소홀 경고받고도 무시

허위 공문서·증거 삭제 등 직무유기·은폐까지

해양경찰 소속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증거까지 삭제하고 관제 소홀 지적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도 심각한 실정이다.

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진도VTS 직원 3명은 지난 3월 예인선 충돌 사고 당시 해상 관제를 소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감사에 지적돼 불분경고 조치를 받았다. 불분 경고는 '징계 처분할 수 없으니 주의하라'고 촉구하는 조치다.

진도VTS는 앞서 지난 3월 28일 새벽 2시45분경 완도군 보길도 서방 7마일(11.2km) 해상에서 화물선과 예인선 충돌사고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해 감사를 받았다.

안일한 근무 태도 드러났다. 진도VTS는 지난 3월부터 직원 2명이 구역을 절반으로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

긴 채 야간에 1명만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1명은 잠을 자거나 인터넷을 하는 등 출근만 했을 뿐 관제 업무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해해경청의 관제 소홀에 따른 경고를 받고도 관제사 12명은 이런 근무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규정대로 2명이 근무를 했다면 세월호 이상징후를 빨리 파악해 대처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겠다며 아예 보관중인 기록·자료까지 삭제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진도 VTS는 근무 시간 내 1명이 관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 2명이 선박들과 교신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관제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 방향을 바꾸는가 하면, CCTV에 저장된 3개월치 촬영분을 삭제한 데 이어 아예 CCTV를 떼어 내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학여행 새 시행 방안 관련업체들 “어쩌나”

소규모 여행 비용 증가 고심

교육부가 마련한 새로운 수학여행 시행방안에 대해 현지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중단시킨 각급학교의 수학여행을 7월부터 재개하기로 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행방안에서 수학여행 계약업체의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솔교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서비스업체의 차량안전정보 제공 및 선박과 항공의 출발 전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또 학급 또는 동아리 단위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5학급(150명)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부보 동의를 아래 안전대책과 교육적 효과 등을 점검하고 나서 적합한 경우에만 신고 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시행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지 관련업체들은 불만과 걱정을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우선 소규모 테마형의 수학여행이 이뤄지면 학년 단위의 대규모 수학여행단을 상대했던 유명 관광지의 수학여행 관련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근거리 역사기행과 생태·환경탐방, 농촌체험 등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은 유명 관광지를 둘러싼 종전의 수학여행과는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안전요원 확보를 비롯해 소규모 수학여행단을 상대할 경우 경비가 증가하는 것도 업체로서는 걱정이다. /연합뉴스

육상트랙서 자전거 탄다며 주먹질

○...육상트랙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운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20대가 경찰서행.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26)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김모(13)군을 멈춰세워 어깨를 밀치고 자전거를 발로 차는 등 혼쭐했다는 것.

○...경찰은 상무시민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익근무요원의 제보로 운동을 나온 정씨를 붙잡았는데, 정씨는 경찰에서 “많은 사람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중학생이 주변 사람 불편은 신경도 안쓰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자 어른으로서 혼쭐을 줬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2분)

4층 (용봉지구 미래A엠펙코너) 르까프 매장 뒷, 군산아구찜 앞

룸21개
(1층상가 2칸, 4층 고급주택1개 옥탑)
(엘리베이터완비, 정남향, 등기완료)

월수익 880만
(1년 수익 1억500만 발생)

매가12억
(보2억 용3억 실투자 6억)

신축원룸매매4층

(전대정문1분, 전대후문1분)

룸12개
(1층 점포, 4층고급주택, 옥탑)

월수500만
(1년6000만 수익발생)

매가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주)신한 010-6670-9800

상가매매 · 오피스텔매매(수익성)

- ▶북구 우산동 7층 상가건물매매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목욕탕)토지96평 건물 565평 월수800만(주인직접경영시 1000만발생)매가11억(보2억 용4억5)
-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 (신한은행 두시,모아엘가A 상가앞) 매가13억5천(보3천 용2억5)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해남동 쪽) 매가 2억5천(보2천 월 120 09년)
-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8층중 2층) 62평(부영APT앞) 매가1억7천(보1천 월70 09년)
- ▶나주시 삼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북구 산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쌍용동원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전역 1번 출구 2분
(울수리 전제제부 신규교체 임대완료, 주인거주가능) |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월30 용1천)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연)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앞) 30평 매가 1억9천 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신축원룸임대 (용봉지구 미래APT 옆)

버스정거장 3분에 있음 신축 4층, 룸 21개 엘리베이터 완비, 정남향

▶수원지구 3층 25평 임대(한솔빌딩)신한은행 뒷, 모아A 상가앞 보1천50만(시비없음)

▶수원지구 3층 62평(엘스타)롯데마트 옆, 해남공단 4번 쪽보2천 월120(분할가능)

▶수원지구 1층 18평(한도빌딩)대방 5차 APT후문앞보2천 월120만(시비없음)

▶북구 우산동 1층 80평(구호전사거리 무등장레스토랑) 보3천 월150만(시당, 카페, 당구장, 호프전문점)

▶나주 삼영동 학원1층(70평)2층(60평)-상담후결정

원룸 보200 월30만/투룸 보300 월40만

(주)신한 010-6670-9800 / 062)952-5584

(주)대신경매

- 이제 경매로 시작해서 부자되세요
-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컨설팅 해 드립니다
- 건축설계, 건축시공, 리모델링(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상가/근린주택 ▶ 수익성 물건

- 동구 신수동 근린시설(대 275㎡ 건246㎡) 감정4억6, 최저 3억2, 투자적합
- 광산구 신항동 근린시설(대2000㎡ 건909㎡) 감정18억5, 최저10억4, 대로본 6차선
-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대183 건152㎡) 감정1억6, 최저6천9백, 대인시장대
- 북구 각화동 근린시설(대1123㎡ 건605㎡) 감정8억6, 최저4억8천, 각화시장부근
- 동구 충정로 근린시설(대713㎡ 건500㎡) 감정11억, 최저4억9천7, 충정로5가
- 서구 양동 근린시설(대809㎡ 건1108㎡) 감정17억, 최저9억5천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대1094㎡ 건4489㎡) 감정4억41억, 최저2억8, 금호월드옆
- 북구 신안근린시설(대951㎡ 건902㎡) 감정2억6, 최저14억8
- 동구 소태동 근린상가(대100㎡ 건272㎡) 감정2억2, 최저1억, 주거상가
-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대330㎡ 건1283㎡) 감정11억8, 최저5억3, 투자적합

주 유 소/공장

- 광산서봉동 주유소(대1821㎡ 285㎡) 감정가11억4, 최저8억2천, 영광도로
- 영암군 신흥읍 주유소(대918㎡ 건1292㎡) 감정가 26억4 최저18억4

APT/주택/빌딩

- 광산구 신항동 APT(대지62㎡ 건125㎡) 감정가2억5, 최저1억7천, 주거문화
- 남구 봉선동 APT(대지32.58㎡ 건59.4㎡) 감정가 8천9백, 최저3천9백2 주거문화
- 북구 중흥동 주택(대지254㎡ 건235㎡) 감정가 2억, 최저1억5천, 전남대 부근
- 상무지구 정연오피스텔 임대 3층 30㎡ (보증금 2천, 월120만) 매매가능 내부 인테리어 시설 무료제공

대지/토지

- 동구 계림동 대지(대지511㎡) 감정가6억9, 최저4억9천, 광주고 바로 앞
- 동구 충정로 대지(대지298㎡) 감정가5억, 최저2억2천, 충정로 유동인구 많음
- 광산구 소촌동 대지(대지1956㎡) 감정가20억, 최저20억, 광송간도로 송정역
- 광산구 송정동 대지(대지72.9㎡) 감정가1억2천8, 최저9천, 코너토지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임대 6층 48평(보증금 1천, 월80만) 매매가능

오피스텔 및 특수물건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골든오피스텔(대428㎡, 건1907㎡) 감정 3억5천 최저 1억6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205㎡, 건75㎡) 감정 1억 최저 4천5백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32.8㎡, 건119.3㎡) 감정 1억4천3 최저 6천4
- 북구 신안제일오피스텔 (대5.81㎡, 건21.7㎡) 감정 3천9백 최저2천7백9십
- 서구 치평 수림 오피스텔(대7.6㎡, 건44.1㎡) 감정 6천1백 최저4천9백

건축시공 설계부터, 임대 매매 리모델링까지 책임지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경매 함께 가족처럼 같이 공동할 분

상가, 대지, 근린시설 주택, APT, 전문취급함

010-6832-9700 / 062)512-8080